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을 촉구하는 대전지역 지식인선언

때 : 2005. 6. 14(화) 11:00

곳 : 대전광역시청 기자회견실

○ 참석자 소개

○ 인 사 말

○ 지식인선언 낭독

○ 질 의 응 답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을 촉구하는
대전지역 지식인 선언자 **1,030명** 일동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성공을 촉구하는 대전지역 지식인 선언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선진 국가를 향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화 정책이 지금 일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봉착하여 심각한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화를 위한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을 여야합의하에 만들어진 특별법을 거부하면서까지 무산시킨 후, 대신 충청권 민심달래기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용두사미격 정책으로 축소시키는데 성공한 일부 수도권 기득권 세력들은, 이 여세를 몰아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오는 15일(수) 제기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수도를 한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는 장소로 입법기관의 직무 소재지, 대통령의 대내외적 활동 수행장소,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의 결정적 요소이며, 정부부처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처의 일부 이전은 결코 위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위헌 가능성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야당인 한나라당 의총에서 적법적인 표결절차를 거쳐 추진되었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을 또다시 부정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권능에 대한 부정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소송은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 집착한 일부세력의 국가균형발전을 좌초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였던 우리로써는 정치적 계산과 편협한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그들의 작태에 환멸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반분권·반분산 행태에 맞서 우리는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결연하게 투쟁할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또 하나 중요한 분산화 정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마저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나아가 수도권 규제마저 이 기회에 전면 철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제시한 바 있지만, 출범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이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마저 담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기득권세력들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확실치 않은 이 틈을 틈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일부 정치인, 보수언론, 그리고 수구적 지식인 등과 연대세력을 구축해 수도권 기능의 지방 분산에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여정부의 취약성을 공격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저지함은 물론 수도권 규제를 전면 철폐하려하고 있고, 나아가 신행정수도에서 크게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마저 아예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좌초시킨다면, 이들의 마지막 목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마저 중단시키는 것임이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한때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하였던 정치권은 일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막무가내식 여론몰이에 휘둘려 민주적 합의정신을 저버리고 국가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겉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동의하는척 하면서 실제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극력 저지하고, 수도권의 전면적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지자체장들과 지도층 인사들은 저마다 자기 지역에 한전 등 대형공공기관 유치만을 부르짖는 분열적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켜 공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이기주의는 수도권 기득권세력들에게 수도권 분산화 반대와 지역감정 조장의 빌미를 제공할 뿐 지방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수도권 분산화 정책은 수도권 공화국으로 표현되는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균형발전과 국가선진화를 위한 큰 가치와 목표를 위해 국민 모두가 대승적인 자세로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수도권이 살고, 지방이 살며, 나라가 삽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중앙정부, 정치권, 수도권 일부 기득권 세력, 그리고 지방민 모두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발전을 염원하는 뜻있는 사람들의 소명과 책무라고 확신합니다.

1. 편협한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 집착하여 헌법적 절차를 정략적으로 남용하는 세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위헌 헌법소원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나아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을 좌절 시키려는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 국민과 더불어 정략적 헌법소원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이 무산될 경우 대통령

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상실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수도권 분산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4.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이전대상 공공기관 노조, 그리고 중앙일간지 및 경제지 등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한 수도권 분산화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과 왜곡보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는 중앙일간지와 경제지 등이 수도권논리에 집착,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감정과 분열주의를 자극하는 왜곡 불공정 편파보도를 지속할 경우 해당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단호한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한다.

5.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도층 인사들은 지역이기주의와 당락에 물든 과열된 공공기관 유치경쟁을 중단하고, 수도권의 이해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온 힘을 합할 것을 촉구한다.

6. 이전대상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직장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 과업에 동참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득권세력에 이용될 수 있는 집단이기주의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6. 14

간호진 강대두 강도묵 강민구 강부식 강석근 강성진 강성희 강신갑 강신성 강신정 강신철 강연구 강영구 강영희 강예경
강용근 강용찬 강용찬 강윤희 강전희 강정현 강정화 강준영 강현수 강현숙 강혜성 강화식 강희재 고갑준 고대식 고병년
고영득 고은숙 고은아 고은지 고재봉 고제열 고종승 고종혁 고현진 곽경아 곽명순 곽용주 곽종섭 곽현근 곽현근 곽현정
곽효상 구자록 구자영 구재숙 권선필 권순자 권술룡 권영기 권영덕 권오균 권오완 권용훈 권이중 권종만 권지훈 권춘식
권혁호 권혜영 권희경 금동훈 금홍섭 기영석 길 훈 길금돈 길복종 길상일 길춘현 김 준 김 진 김 혁 김갑동 김갑용
김경수 김경완 김경주 김경중 김경희 김경희 김관중 김광수 김광주 김광주 김귀덕 김규범 김규복 김근만 김기상 김기순
김기운 김기출 김기호 김낙성 김낙희 김대곤 김대수 김대열 김대진 김대호 김도환 김동성 김두현 김래호 김록중 김명곤
김명태 김무희 김미숙 김미영 김미정 김미정 김미종 김민영 김백기 김병갑 김병미 김병석 김병진 김봉구 김상수 김상호
김선건 김선경 김선미 김선옥 김선자 김선종 김선주 김선진 김선태 김선화 김성구 김성림 김성림 김성용 김성우 김성훈
김세동 김세종 김수경 김수명 김수현 김숙자 김순신 김순조 김순태 김승권 김승현 김시현 김애란 김양기 김양주 김양주
김익수 김연미 김연수 김연주 김영남 김영란 김영숙 김영순 김영제 김영호 김영희 김영희 김예경 김용문 김용분 김용서
김용석 김용우 김용태 김원동 김원석 김원익 김윤기 김윤석 김윤정 김은석 김인근 김인기 김인순 김일기 김일룡 김일석
김일자 김재광 김재근 김재문 김재연 김재원 김정기 김정동 김정수 김정숙 김정숙 김정애 김정옥 김정은 김정이 김정현
김정호 김정홍 김제선 김종규 김종남 김종남 김종돈 김종련 김종민 김종생 김종숙 김종신 김종원 김주언 김주일 김주홍
김주희 김준배 김지연 김지현 김지훈 김진기 김진성 김진연 김진중 김진호 김진화 김진희 김창림 김창섭 김창일 김창집
김창태 김춘경 김춘근 김태순 김태진 김태철 김하근 김학원 김학원 김학일 김향란 김현님 김현미 김현숙 김현숙 김현식
김현정 김현중 김현택 김형대 김형돈 김형태 김혜정 김혜천 김호경 김홍석 김홍일 김화영 김홍수 김홍식 김홍환 김희경
김희덕 김희성 나민식 나병식 나영석 나준식 나한석 남기성 남석희 남시덕 남일우 남재영 노경임 노재삼 노현승 도숙자

도영실 도정한 류병로 류성근 류종국 류충희 류철로 류현미 맹용호 맹태호 명노충 명은주 문상원 문영배 문정원 문중호
 문창기 민 찬 민명수 민소영 민순기 민양운 민완기 박 경 박경란 박경란 박경수 박경혜 박광임 박근식 박귀숙 박규용
 박규환 박길애 박노덕 박노영 박두찬 박만규 박만규 박명희 박미영 박미영 박미정 박민범 박민주 박병규 박병남 박병삼
 박병현 박봉환 박상민 박상용 박상우 박상인 박상진 박상호 박상훈 박석준 박선례 박선진 박선희 박성경 박성관 박성규
 박성규 박성기 박성진 박성화 박승원 박영남 박영석 박영해 박영호 박우순 박은미 박은숙 박은영 박익규 박장규 박재묵
 박재완 박정인 박정현 박정희 박종대 박종만 박종식 박중우 박주병 박중규 박진성 박진호 박찬욱 박천용 박충현 박철순
 박현주 박효수 박홍식 박홍식 박희남 박희삼 박희원 박희진 방미숙 방석조 방성호 방하길 배경환 배문호 배억근 배은영
 배호석 배화영 백경록 백경원 백경자 백병일 백상구 백상열 백성근 백장현 백종섭 백준흠 변육진 변창의 복진국 복홍순
 서만석 서성구 서성민 서승철 서인우 서정신 서창욱 서현숙 서현희 석상준선우동명성경환 성영제 성주관 성훈식 소미영
 소재성 손경수 손근석 손나연 손대섭 손동광 손민호 손병거 손봉철 손상영 손해석 송경구 송기환 송대훈 송동호 송미자
 송영배 송영주 송영환 송원준 송원호 송인선 송인암 송인준 송인현 송정호 송창기 송태재 송하중 송해선 송현훈 송호영
 신동혁 신동호 신명식 신병철 신상구 신상래 신성진 신성호 신숙영 신숙현 신옥경 신운우 신웅근 신원식 신윤희 신정철
 신현덕 신현정 신희권 심규열 심근수 심예보 심완섭 심재호 안광우 안기호 안병선 안병욱 안병진 안보상 안성돈 안성호
 안여중 안인숙 안재영 안재준 안정선 양기현 양동철 양무석 양운정 양창국 양해림 양해원 양혜숙 양홍모 어현주 엄숙희
 여영환 여운창 여운철 여인준 여향현 엄경호 엄대형 엄동걸 엄승삼 엄호섭 예찬해 오계환 오광영 오국진 오규진 오규환
 오기자 오기진 오동규 오동석 오명근 오문환 오성균 오세광 오세남 오세우 오영화 오요안 오은송 오정근 오정하 오제훈
 오종필 오종해 오찬섭 오창근 오피기 오현숙 온상열 온정미 우인환 우중환 우희재 우희창 원상영 원용철 원종상 원주연
 원창연 유 철 유 현 유경희 유근철 유달상 유동규 유병구 유병규 유병숙 유병연 유병철 유상식 유성권 유성희 유수진
 유순복 유승병 유종원 유지덕 유지현 유희철 육근화 육덕균 육동희 윤경식 윤경자 윤국렬 윤금성 윤기중 윤길숙 윤만섭
 윤명기 윤미경 윤미정 윤병욱 윤석연 윤선혜 윤여백 윤인식 윤일선 윤종삼 윤종환 윤주미 윤준원 윤지연 윤지영 윤충식
 윤태천 윤평구 이 호 이강숙 이강시 이강열 이강영 이강훈 이건우 이경양 이경호 이관목 이광진 이권재 이규금 이규원
 이기동 이기면 이기청 이기탁 이기태 이기홍 이대규 이대성 이대성 이덕세 이동규 이동원 이동진 이동현 이두진 이만유
 이문지 이문희 이미자 이미형 이민재 이범열 이병연 이병영 이상덕 이상두 이상배 이상봉 이상봉 이상수 이상욱 이상재
 이상호 이석동 이선경 이선민 이선하 이성호 이수영 이숙영 이순숙 이승복 이승운 이승호 이승희 이영실 이영학 이연희
 이영남 이영민 이영범 이영욱 이영주 이영희 이옥희 이왕기 이요한 이용백 이용원 이용훈 이우기 이우복 이우현 이우현
 이운우 이웅구 이원우 이위자 이윤숙 이윤우 이윤호 이은경 이은규 이은규 이은식 이은영 이인구 이인세 이장우 이장호
 이장훈 이재규 이재만 이재석 이재성 이재영 이재인 이재준 이재철 이재형 이정규 이정규 이정님 이정보 이정선 이정숙
 이정숙 이정순 이정인 이정재 이정훈 이재중 이종근 이종대 이종대 이종범 이종상 이종석 이종운 이주봉 이주영 이주찬
 이준우 이지영 이창기 이창환 이창원 이창원 이치구 이춘규 이춘식 이춘우 이춘재 이치영 이태용 이풍우 이필영 이한근
 이해영 이해정 이현경 이현구 이현수 이현수 이현욱 이현주 이현호 이해옥 이해진 이홍규 이호열 이호중 이훈영 이흥배
 이흥주 이희정 인순환 인주환 인창원 임동진 임동진 임문기 임병재 임봉수 임상일 임상일 임상일 임성규 임수진 임영란
 임영호 임용규 임은정 임의목 임재병 임재용 임재인 임재하 임정규 임종호 임현균 임현만 임현백 임현태 장 순 장규석
 장규철 장동환 장래국 장석근 장수찬 장수한 장수현 장영수 장영숙 장영희 장 원 장은령 장은희 장정희 장팔수 장현봉
 장현이 장현자 전경미 전덕식 전병철 전소영 전수경 전숙희 전시경 전시준 전용완 전일홍 전종대 전총립 전태용 전현규
 전희정 정 진 정강희 정경량 정계인 정관성 정규진 정근모 정기영 정기현 정기홍 정만영 정문성 정민경 정병순 정병오
 정부한 정삼례 정상균 정상택 정상훈 정상희 정성경 정선기 정선면 정세영 정순란 정순란 정순진 정승호 정연기
 정연지 정연철 정용기 정유규 정윤성 정윤진 정은영 정은희 정의선 정의영 정인섭 정인창 정정조 정종관 정주미 정진영
 정진일 정진학 정진홍 정해순 정혁수 정호진 정희영 조경일 조근자 조도행 조동현 조명호 조미원 조병렬 조병설 조보아
 조부활 조상구 조상현 조선희 조성교 조성근 조성식 조성인 조성준 조성혜 조신희 조애경 조연상 조영구 조영호 조운철
 조재수 조정호 조종백 조찬재 조형태 조혜연 주 원 주동선 주문식 주상필 주원삼 지영한 지형식 지홍열 진상희 진선길
 진종부 진창구 차동빈 차용경 차윤증 채계순 천용기 천일교 최규란 최기태 최동규 최병목 최부호 최상훈 최승상 최연희
 최영규 최영민 최영운 최영호 최용구 최용낙 최용노 최용빈 최용석 최우석 최유정 최은숙 최은숙 최은아 최은영 최은예
 최이돈 최인중 최일권 최재상 최재준 최정규 최정우 최정희 최주영 최주용 최준희 최진혁 최충식 최태순 최태현 최판성
 최현주 최혜란 최호택 최홍찬 추명구 표경숙 하상욱 하영수 한 흥 한경희 한규영 한규환 한기환 한만대 한명숙 한명우
 한명진 한명희 한상근 한상현 한성례 한승동 한영진 한옥희 한원규 한은숙 한일수 한진걸 한호동 허 춘 허남주 허민욱
 허용주 현대경 홍금숙 홍수정 홍영희 홍정숙 홍주신 홍치윤 황규홍 황돈영 황로서 황명동 황무연 황보운 황상순 황선무
 황선애 황선호 황성미 황승순 황인수 황호준 (총1,030명)